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8(216~232)

『北學議』의 경제지리*

손용택**

요약: 본 연구는 박제가의 [북학의]를 통해 그의 지리적 관심과 지리지식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면에 활용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피는데 있다. 특히 경제지리적 내용을 추출해서 농업·공업·상업지리 내용으로 분류 해석하였다.

농업지리 내용으로 농지, 종자파종, 시비, 가축사육, 농잠과 과일 등에 대해 상세하고 치밀하게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업지리 내용으로 연경(북경)에 와 있는 서양학자들로부터 첨단과학 및 공학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여 우리 것에 대한 근대화를 꾀할 것을 강조하였다.

상업지리 내용으로 양반들의 유향 노동력을 실용적인 상업생산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며 수레를 통한 육로교통을 열고 이웃 나라(청, 일본, 유구, 베트남 등)들과 뱃길 통상의 길을 열어 지역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구를 통해 박제가는 경제지리 내용에 밝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경제지리 관련 지식을 활용해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실학자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경제지리적 관심과 지식은 실사구시에 직결되는 것이다. 당시 박제가의 경제지리적 지식과 활용의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나라에 의해 효율적으로 채택되었다면 조선시대 후기의 국가 경제력은 크게 도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요어: 박제가(朴齊家), 북학의(北學議), 농업-공업-상업지리 관련내용, 실학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박제가는 어렸을 적부터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과 조선시대 선조 때의 학자이며 의봉장이었던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사람됨을 존경하여 그들에 관한 문헌들을 탐독하고 그들의 생각에 깊은 공감을 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최고운은 당나라에 가서 진사

(進士)가 된 다음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라의 풍속을 혁신시켜 중국과 같이 문명을 진보시킬 것을 생각한 선각자였기 때문이고, 중봉은 질정관(質正官)으로 연경에 다녀왔는데, 그가 지은 동환봉사(東還封事)는 매우 정성스런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읽고 존경하였다.

박제가는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성리학과 유교주의로 점철된 조선시대의 갑갑한 상황에 대해 박제가, 박지원,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과제로 수행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홍대용 등 당대의 실학자들은 새로운 문물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구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문명에 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이들을 북학파라 한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북학과 실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박제가의 저서 『北學議』를 대상으로 그가 지닌 지식체계와 사고체계에 '지리적'인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중상주의, 중농주의, 그 밖의 사유에 있어서 '경제지리적' 접근과 해석이 가능한가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당대의 당면한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데 익숙한 지리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과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지리지식과 사고체계에 다가가 분석의 잣대를 대보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연구자는 늘 고민했다. 고민의 끝은 이렇다. 선학들이 당시에 특히 실학이라는 성격의 학문적 체계로 특징 지워진 지식과 사고체계에, 딱히 그들이 이것을 '지리지식' 또는 '지리적 사고'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관련 지식과 사고체계에 무장한 그 무엇이 있었는데, 분명치 않지만 그 지식형태로부터 무엇을 잡아내어 분석, 정리하여 본다면 그 무엇이었던 대상으로부터 '지리지식' 또는 '관련 사고체계'가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귀결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과거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복원해 놓고, 현재화된 가정속에 지리적 분석으로 접근해 본다는 방식일수 있다. 어쨌든 연구자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분석코자 한다.¹⁾

본 연구는 박제가의 대표적 저서인『북학의』를 분석하되,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보고 비판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대에 조선 실학자들이 조선과 청나라 간의 문화와 경제교류의 현실에 대해 어떤 사고와 고민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수용하려 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대의 청류(靑流)를 박제가는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당대 우리문화와 경제에 어떻게 접목시키고자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 연구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연구접근 방법은 피하는 게 좋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 절차와 방법을 추구하려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일단 실학서로 알려진 박제가의 『北學議』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둘째, 『北學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은 후, 경제지리 관련 내용들만을 일일이 추출해 낸다.

셋째, 추출된 경제지리 관련 내용들을 농업지리, 공업지리, 상업지리 내용별로 재분류, 정리한다.

넷째, 북학의에 담긴 경제 지리 내용들(지식)은 저자 박제가에게, 그리고 당시 시대상황에 어떤 의미로 다가갈 지식내용들이며 영향을 지닌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다섯째, 주제별로 분류,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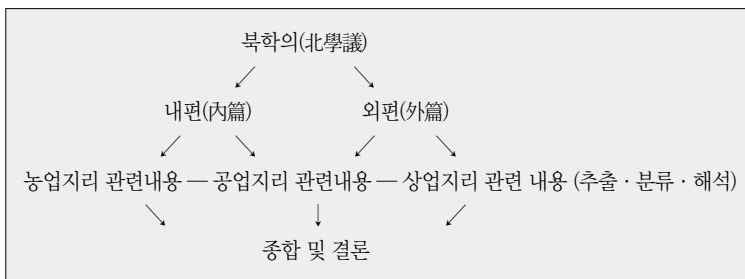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설계

해서 저자 박제가와 그 시대상황에 왜 이와 같은 지리지식 또는 관련 사고체계가 필요했는가를 '경제 지리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여섯째,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北學議]에서 담고 있는 “경제지리 관련 지식과 내용”에 대해 성격과 의미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박제가의 삶과 시대배경

소년 시절부터 시·서·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쳐 19세를 전후해 박지원을 비롯한 이덕무·유득공 등 서울에 사는 북학파들과 교류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이덕무·유득공·이서구 등과 함께 《건연집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내어 문명을 청나라에까지 떨쳤다. 1778년 사은사 채제공(蔡濟恭)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筠)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들은 것을 정리해 《북학의 北學議》 내·외편을 저술하였다. 내편에서는 생활 도구의 개선을, 외편에서는 정치·사회 제도의 모순점과 개혁 방안을 다루었다. 이로부터 13년간 규장각 내·외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비장된 서적들을 마음껏 읽고, 정조를 비롯한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과 깊이 사귀면서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 간행하기도 하였다.

1786년 왕명으로 당시 관리들에게 시폐(時弊)를 시정할 수 있는 <구폐책 救弊策>을 올리게 하였다. 이때 그가 진언한 소는 주로 신분적인 차별을 타파하고 상공업을 장려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그 뒤 1790년 5월 건륭제(乾隆帝)의 팔순절에 정사(正使) 황인점(黃仁黈)을 따라 두 번째 연행(燕行)길에 오르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다시 왕명을 받아 연경에 파견되었다. 원자(元子: 뒤의 순조)의 탄생을 축하한 청나라 황제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정조는 한낱 검서관인 그를 정 3품 군기

시정(軍器寺正)에 임시로 임명해 별자(別咨) 사절로서 보낸 것이다. 1793년 정원에서 내각관문(內閣關文)을 받고 <비옥희음송 比屋希音頌>이라는 비속한 문체를 쓰는 데 대한 자송문(自訟文)을 왕에게 지어 바쳤다.

1794년 2월에 춘당대 무과(春塘臺武科)를 보아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98년 정조는 선왕인 영조가 적전(籍田)에 친경한 지 회갑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널리 농서를 구하였다. 이 때 박제가는 《북학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지농정소 應旨農政疏>를 올렸으며, 《소진본북학의 疏進本北學議》는 이 때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1801년(순조 1)에는 사은사 윤행임(尹行恔)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네 번째 연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동남성문의 흥서 사건 주도자인 윤가기(尹可基)와 사돈으로서 이 사건에 혐의가 있다 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에 풀려났으나 곧 병으로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다.²⁾

박제가의 운명 연대는 1805년과 1815년 설이 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며 동지인 박지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해 곧 죽었다는 기록과, 1805년 이후에 쓴 그의 글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1805년에 죽었다고 볼 수 있다. 묘는 경기도 광주에 있다.

박제가는 시·그림·글씨에도 뛰어난 재질을 보여, 청대(清代) 《사고전서 四庫全書》 계열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련 형식(對聯形式)을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씨는 예서 풍을 띠고 있으며 조선 말기의 서풍과 추사체의 형성에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구양순(歐陽詢)과 동기창(董其昌) 풍의 행서도 잘 썼으며 필적이 굳세고 활달하면서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박제가의 그림은 간결한 필치와 맑고 열은 채색에 운치와 문기(文氣)가 짙게 풍기는 사의적(寫意的)인 문인화풍의 산수·인물화와 생동감이 넘치는 썩·고기 그림을 잘 그렸다. 이처럼 박제는 당대의 훌륭한 학자인 동시에 시와 그림, 글씨에도 뛰어난 재질을 보였던 다재다능한 학자였다.

2. 농업지리 관련 내용

박제가는 북학의 저술의 동기를, “그 나라(淸)의 습속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만한 것과 날마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듣고 보는 대로 붓으로 적고, 또 시행해서 이로운 것과 폐가 되는 것을 붙여 적어서 풀이한 다음, 맹자(孟子)가 진양(陳良)을 말한 것을 따서 “북학의(北學議)라 이름 한다”고³⁾ 하였다. 그의 실사구시의 실학 정신이 잘 드러난 서술이다.

기술혁신의 절박한 필요성을 농업부문에서도 강조하였다. 박제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사방 1천리인데 농업기술이 부족하여, 청나라의 경우 같은 단위면적의 논밭에서 세 줄을 심는데 우리나라는 두 줄을 심으니 실제의 이용면적은 6백리로 줄어진 것과 같으며, 중국은 하루 경작 면적에서 50~60석을 수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석 정도의 수확량을 생산하므로, 6백 리 면적이 다시 2백 리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산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의 현격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방 1천리 길의 농사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겨우 사방 2백리 면적의 수확량으로 그친다고 비교한 것이다.⁴⁾ 오늘날의 계량적 수치로 따지자면 지나치게 영성한 산술적 설명이긴 하나, 농사기술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1) 농지이용과 농산물 관리

(1) 밭과 곡식, 시비(施肥)에 대해

박제가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淸)의 밭 경지관리에 대해 논한다. “우리나라의 밭은 소의 다리 사이만한 넓이에 곡식 한 줄씩을 심는다. 곡식이 자라서 북돋을 때면 두 번째로 겹쟁기를 소에다 매어서 골 양쪽 가의 흙을 갈아 올린다. 쟁기 넓이는 소 다리사이 넓이와 같으며, 처음 갈았던 골을 따라서 간다. 이때 새 흙이 뒤집혀 일어나면서 곡식이 소의

배 밑에서 우수수 일어난다. 그런데 중국 밭에 심은 곡식 세 줄 사이가 우리나라의 밭 곡식 두 줄 넓이와 같으니 이것을 보면 우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1/3의 밭을 내버리는 셈이다. 중국(淸)에서의 흙 쟁기는 소의 대응으로 사람이 끄는 것인데 소가 하는 일의 반을 한다. 이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밭과 소와 사람과 기구(器具) 등의 조합이 합당하고 또한 심는 방법이 균일하여 중복되거나 비뚤어지지 않는다.”⁵⁾라고 설명하면서 조선과 청나라 농부들의 밭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차이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곡식에 대해서도, “자란 곡식도 똑같이 자라서 길고, 짧으면 똑같이 짧아 들쭉날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심을 때나 보리를 심을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뿌리므로 더부룩하게 저절로 서로 얽혀 바람을 고루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음지와 양지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 높이 자란 것은 벌써 열매를 맺어 익었는가 하면 키가 낮은 것은 이제야 꽃이 한창 피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작물의 성질을 잘 알고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씨앗은 고루 낱알이 뿌려야 한다. 낱알의 씨앗이 병들지 않아야 수확이 보장되는 것이며, 종자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수확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여 파종의 방법과 씨앗 뿌리는 양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의 성장관리에 대해 소상하게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농업 지식이라 할만하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며칠갈이 또는 몇 섬 종자라는 것은 실상 그 수효의 반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해마다 몇 만섬 곡식을 땅에다 버리는 셈이다. 박제가는 이러한 낭비를 지적하고,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밭 갈기와 종자 뿌리는 것을 비교하여 그 낭비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제가는 거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중국에서는 거름을 금같이 아끼고 재(灰)를 길에 버리는 일이 없으며, 말이 지나가면 삼태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말똥을 줍는다. 길가에 사는 백성은 날마다 광주리와 가래를 가지고 모래밭에서 말똥을 가려내어, 산

같이 쌓은 거름더미가 반듯하며 혹 세모지게, 혹 육모지게 쌓는 것을 눈 여겨 보았다. 거름더미 밑 둘레에는 물골을 파서 거름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똥을 거름으로 쓸 때에도 물에 타서 진한 흙탕물과 같게 한 다음 바가지로 퍼서 뿌려 그 효력을 고르게 하려는 점 등을 잘 살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른똥을 그대로 쓰므로 효력이 흠어지고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성안에서 나오는 분뇨를 일거에 수거하지 못해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며, 하천의 다리 옆 석축(石築)에는 인분이 더덕더덕 붙어서 큰 장마가 지나가야 씻길 정도로 관리가 소홀함을 비판하고 있다. 개똥과 말똥이 사람의 발에 쉽게 밟힐 지경인 것은 우리나라 농부들의 거름을 아끼고 관리하는 정도가 중국(청)에 못 미치는 결과로 보았다. 당시 신탄(땃 나무)을 사용했으므로 성안에서는 한 해 동안 나무를 연료로 사용한 후 나오는 재만 해도 몇 만섬에 이르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를 무심히 버려두고 거름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앉아서 몇 만 섬의 곡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⁶⁾

요컨대, 박제가는 청나라 사람들의 토지관리, 거름관리, 종자 관리의 세밀함과 한치의 낭비도 적게 하려는 자세와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농촌경제와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2) 농잡과 과실

박제가는 당시 누에를 삶아 비단을 짜는 농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뽕나무를 가꾸고 거두는데 대한 그의 섬세한 지식은 실용성을 갖춘 전문가 수준에 버금갈 정도이다. 그는 지적하기를, “어린 뽕나무는 성장이 더디어서 가꾸기가 어렵고, 늙으면 나무가 병들어 잎이 적고 열매인 오디만 가득 생긴다. 밭에 바로 심어서 채소나 곡식을 가꾸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심은 첫 해에는 돋은 줄기를 물을 질러 태우고, 2년째에 가지를 베어 버리면 떨기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 지엽(枝葉)을 베어다가 누에를 쳐야한다.”⁷⁾라고 뽕나무 기르는 법을 소상

히 안내하고 있다. “중국의 열하성 근처에 있는 난하 서편에는 모래밭이 많은데 바라보면 새 뽕나무가 끊 없이 심어져 있다. 겨우 말의 안장 높이만큼 자라, 가지런한 것이 가지와 잎에 윤기가 나며 보통 뽕과 다르다.”라고 농정전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뽕나무가 잘 자라는 토질환경과 옮겨심기 등 해박한 관련 지식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실의 관리에 대해서도, “연경(오늘날의 북경)에서 과실을 저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작년 여름에 나온 과실과 금년에 새로 나온 과실과 섞어 파는데, 사리와 포도 따위는 빛깔이 금방 나무에서 따온 것과 같다. 이 같은 한 가지 저장하는 방법만 알게 되어도 한 때 이익을 보기에 족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제가는 물리소지(物理小識)를 인용해 배의 저장법을 적고 있다. 즉, “배는 무우와 함께 저장하면 썩지 않으며 혹은 배 꼭지를 무우에다 꽂아둔다.” 또 다른 기록을 인용해 감을 저장했다 먹는 방법을 적고 있다. 즉 “큰 대나무를 땅에 심어서 있는 그대로 위쪽을 끊어내고 그 밑동의 대롱에다 감을 저장한 다음, 진흙을 문쳐서 대롱 주둥이를 봉해 두었다가 여름이 지난 후에 끄집어낸다.”⁸⁾ 당시에는 당연히 김치냉장고나 과일을 싱싱하게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 등이 없었을 것이므로 과일의 싱싱한 맛을 유지한 채 보관하는 방법에 온갖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이들 방법을 박제가는 소상하게 알려주고 안내하고 있다. 오늘날 사과, 배, 감 등의 과일산지에서 과일창고를 두고 온도, 습도 등을 기계장치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수요처에 공급될 때까지 싱싱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도 이처럼 지혜를 발휘하여 과일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랄 정도이다.

2) 가축사육

청나라의 요동 땅을 밟고 지나며 박제가는 동리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의 수와 그 사육 상태를 보고 크게 놀라고 있다. 개와 닭, 말, 노새, 나귀, 소, 돼지, 양, 낙타, 거위, 오리 등 그가 본 가축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농가 당 가축종류 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십 마리씩 기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의 요동 땅 좌우 20 리 사이는 닭과 개 소리가 서로 들리고 가축이 떼 지어 노는 것이 보인다. 백성들 중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거지들도 나귀를 끌고 다닌다. 조금 부잣집이면 가축이 십 여종에 수백 마리에 이르는데 말, 노새, 나귀, 소가 각각 십여 필이고 돼지와 양이 또한 각각 수십 필, 개 몇 마리, 낙타 한두 마리, 닭과 거위, 오리가 각각 수십 마리나 된다(중략)⁹⁾

좌우 20리(里) 요동 땅의 동리라면 어린 학동들이 걸어서 학교에 등교할 거리 폭의 마을 크기이다. 그 정도의 마을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개와 닭이 서로 짓고 휘치는 소리가 들리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거지들도 나귀를 끌고 다닌다면 이는 분명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과 비교해 잘사는 부유한 마을의 모습이다. 조금 더 잘 사는 집의 경우에 가축이 열 종류가 넘고 총 수백 마리에 이른다 하니 얼마나 부유한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요동 땅은 오늘날의 중국 동북지방 가운데에서도 비옥한 평야 지역이 전개되는 곳이다. 청나라 당시에도 농업경제 및 농업생산 측면에서 부요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관마산(官馬山)이란 곳이 있는데 이 산은 관(官)에서 말을 기르는 곳으로 말이 산을 거의 덮었다. 그 밖에도 수천 마리에 무리로 된 가축을 모두 들판에 방목하는데 비록 눈 오는 기후에도 마시고 먹는 것을 제 멋대로 둔다. 만약에 이것들을 모두 마구에 넣어두고 곡식을 먹이려고 한다면 비록 천자(天子)의 부(富)함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¹⁰⁾

청나라의 관에서 당시 말 사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증거로서 산의 이름 가운데 관마산(官馬山)이 있으며, 그 산에서 대규모의 말 사육을 했던 것을 들어 그 기능을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수천 마리의 가축을 들판에 풀어 방목하는 규모를 설명함으로써 청나라에서는 마을마다 들판마다 말과 그 밖의 가축 사

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매진했음을 살필 수 있다. 아마도 박제가는 청조의 농업경제 부농정책의 실천 수단으로서 축목을 주의 깊게 살폈던 것 같다.

가축 중에 때에 따라 부리는 것은 일의 경중을 보아서 먹이를 갑절로 하는데, 하루에 먹이는 것이 이따금은 두 말 곡식이나 되기도 한다. 모두 소금에 볶은 보리, 옥수수, 콩 등속이고 겨와 쪽정이, 지게미 등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다. … (중략) … 목축이란 것은 나라의 큰 정사이다. 농사일은 소를 기르는데 있고, 군사 일은 말을 훈련시키는데 있으며, 푸줏간 일은 돼지, 양, 거위, 오리를 치는데 있는 것이다.¹¹⁾

여기서 청조(淸朝)의 농촌에서 가축먹이를 무엇으로 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청조에서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었던 보리,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을 사용했다. 이는 일을 시켜야 하는 가축의 중합과 고된 축력을 이용해야 하는 농번기에는 가축에게 먹이로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리, 옥수수, 콩에 소금을 넣어 볶거나 삶아서 먹이 사료로 준 것은 땀을 내며 고되게 일하는 가축을 배려한 사양법이다. 그밖에 등겨나 콩 쪽정이, 그리고 사람이 먹은 음식의 찌꺼기(찌게미) 등을 가축사육 먹이로 준 것은 우리의 방식과도 같다. 요컨대, 청나라와 우리나라는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이 닮은 데가 많지만, 청나라의 경우가 가축사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좀 더 집약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농촌경제의 근간이 가축사육에 있음을 그들은 알고 더욱 중요시 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박제가는 한걸음 나아가 목축을 나라의 큰 정사로까지 보고 있으며, 농사일은 소를 기르는데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박제가의 중농주의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박제가는 그가 보고 느낀 것을 적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것과 날카롭게 비교 하는 동시에 비판을 가한다. 일을 익히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 영농 축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를 사사료이 농촌에서 몰래 도축하여 쇠고기를 먹는 일은

깊은 사려가 배제된 행위인 것이며, 그 밖에도 돼지, 오리, 닭 등 여러 종류의 가축사육에 일반 민가에서 힘을 기울이지 않음을 통탄해 마지않고 있다. 관에서는 일반농가에서 가축을 사육 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농촌경제를 부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정부와 관원들은 그 방향에 대한 철학이 없으며, 따라서 일반 농민들에게도 힘써 장려하거나 실제적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되니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고 다루는 방법이 점점 미숙하여 지고 궁색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축과 가금을 사육하고 제어하는 방법이 장려되고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해서 농촌경제가 점점 피폐하여지니 나라는 부요하거나 부강해질 수 없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조선조의 경제구조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이 컸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은 그 무게와 타당성에 설득력이 크다.

(1) 소(牛)의 사육과 관리

농경사회인 우리나라(朝鮮)와 중국(淸)은 소나 말에 대해 예부터 관심이 많았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소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소에 대해 양국 간의 지리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일은 흥미롭다.

소는 코를 뚫지 않는다. 그러나 남방의 물소만은 그 성질이 사납기 때문에 코를 뚫는다. 간혹 우리나라 소로서 서북지방에 열리는 시장으로부터 중국에 팔려 온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는 콧대가 낮으므로 처음 왔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중략) ...¹²⁾

위의 글에서 조청(朝淸)간의 소 사육방식과 제어방식에 분명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소 사육방식에 있어서 성우로 자라면 코뚜레로 소의 코를 뚫어 쇠고삐를 만들어 준다. 역축으로서 소를 부릴 때 성질이 사나운 소들을 제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그러나 청나라에서는 소의 코를 뚫지 않음은 분명히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이다. 소의 성질이 사나운 정도의

차이가 어떤지는 분명치 않지만, 청나라의 경우 남방의 사나운 물소에게만 코뚜레를 이용한 제어수단으로서 소의 코를 뚫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청나라와 조선의 소는 그 생김새가 분명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지리적 차이를 보이는 흥미로운 요소이다. 간혹 조선의 서북지방에서 청나라로 팔려간 소는 콧대가 낮아 청나라의 소와 금방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조선의 소는 반드시 코뚜레를 이용해 소의 코를 뚫어 역축으로서의 소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소는 청나라의 소에 비해 콧대가 분명히 낮았다고 하는 점은, 소의 제어방식과 생김새에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흥미로운 지리적 차이점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소를 항상 목욕시키고 솔질해 준다. 우리나라 소가 죽을 때까지 씻지 않아, 몸뚱이에 말라붙은 똥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 (중략) ... 또 이곳에서는 소의 도살을 금한다. 황성(皇城) 안에는 돼지 고깃간이 72 곳, 양 고깃간은 70 곳인데, 대체로 한 고깃간에서는 매일 돼지 300마리를 팔고, 양의 숫자도 또한 그렇다. 이와 같이 많은 고기들을 먹는데 쇠 고깃간은 오직 두 곳 뿐이다.¹³⁾

소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도 조청(朝淸) 간의 지역차를 나타낸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소를 항상 목욕시키고 솔질해주어 가축이 청결하고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에 반해, 조선에서는 소가 죽을 때까지 씻기지 않으며 더럽게 키운다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비교이기도 하다. 우리 농촌에서 농부들은 간혹 개천가로 데려가 소를 씻어 주기도 하며, 쇠솔질을 해주어 시원하게 자라도록 해주며 쇠털을 윤기 흐르게 관리해 주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축사육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져 온 것이다. 대체로 청나라 농촌의 농부들이 조선의 농촌 농부들보다 가축 사육에 좀더 철저히 자주 목욕시키고 정갈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는 정도로 비교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청나라에서는 소에 대한 도살을 철저히 금해

소를 중히 여겼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돼지나 양 등 일반 가축들에 비해 역축으로서 소를 대단히 귀한 가축으로 대우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현재 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 간혹 우리의 농어촌에서 밀도살이 행해지는 경우는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도살금지 내용도 농업경제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뿌리내려진 관례적 금지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청나라의 경우가 좀 더 철저하게 소에 대한 도살이 금지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박제가는 청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날마다 소 5백 마리가 죽는다. 나라에서 거행하는 제향(祭享)과 호궤(餽饋) 때는 성군관이나 오부(五部)⁷⁾ 안까지도 24 곳의 고깃간이 생기고 300여 주(州)의 관(官)에도 반드시 고깃간을 벌였다. 혹 작은 고을에서는 날마다 소를 잡지 않는다. 그러나 큰 고을에서는 몇 마리씩 겹쳐 잡으니 결국은 날마다 잡는 셈이다. 만약 소를 일체 죽이지 못하게 한다면, 몇 년 안에 농사를 짓는데 제때에 뒤져서 한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소 잡는 것을 금하면 백성들이 비로소 다른 짐승 기르기에 힘써 돼지와 양이 번성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돼지고기나 양고기는 우리나라 사람의 식성에 길들지 않아서 병이 날까 염려스럽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¹⁴⁾

(2) 말(馬)의 사육과 관리

박제가는 가축 가운데 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논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해 박제가는 정색을 하며 부정하고 있다. 즉, 그의 견해로는 말을 탈 때 별도로 마부를 부리는 일을 좋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생각하기를 무릇 사람이 말을 이용하는 것은 걷는 수고로움을 없애려는 것인데, 하물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기동성을 발휘하여 달려가야 함에도, 거꾸로 이를 제어하는 다른 한 사람이 말과 함께 걸어야 하는 일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기능과 실용을 중시하는 그의 사고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말은 잘 달리고자 하나 사람에게 이끌리고 보면 단번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 재갈을 마부 손에 잡혔으니 고삐는 걸치레일 뿐이고 말이 놀라서 갑자기 뛰기라도 한다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그 밖에도 마부는 말의 목을 억눌러서 자신의 걸음 속도와 같게 하려 한다. 이것은 사람의 걸음에 말을 맞추는 격이다. 하물며 먹이는 것도 제대로 충분하지 않고, 달리는 것도 제 능력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말은 왜 타려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을 기르는 자는 말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핑계로 다른 말들과 교미조차 시키지 않는 당시의 우리 현실을 놓고, 수천 마리나 되는 새끼 망아지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가 되는 셈이니 기가 막히는 일이라 통탄했다. 상대적으로 중국(淸)의 말은 대체로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크고 의젓하다. 박제가는 우리나라 말이 시끄럽게 굴어도 입을 다물고 우뚝 서서 다투지 않는 것을 보고 청의 말을 부러워했다.¹⁵⁾

말은 말답게 키워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마 잡히고 양반이랍시고 잔치하는 태도가 몹시 못마땅했을 것이다.

3. 공업지리 관련 내용

박제가는 중국에 와 있는 서양인들을 우리나라에 초빙해서 우리나라 자제들과 기술자들에게 서양의 선진과학기술을 가르치도록 해서 서양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이 들건대 중국 흠천관(欽天監)에서 책력(冊曆)을 만드는 서양인들은 모두 기하학에 밝으며 이용후생의 방법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관상감(觀象監) 한 곳에 쓰는 비용만큼으로써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대우하고 그

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안의 자제들에게 그 천문(天文)과 전차(躔次; 지구, 달, 별들의 회전도수), 鍾律儀器(중률의 기; 도량형기)의 도수(度數), 농상(農桑), 의약(醫藥), 한재(旱災), 수재(水災), 건조, 누습(漏濕)의 적의(適宜)함이며, 벽돌을 만들어서 궁실, 성곽, 교량을 건축하는 법과, 동광(銅鑛)을 캐고 텅어리 옥을 파내며 유리를 굽는 것과, 외적을 방어하는 화포를 설치하는 것과, 물을 관개하는 법과, 수레를 통행시키고 배(船)를 만들어서 벌목이나 돌을 운반할 때와 같이 무거운 것을 먼 곳까지 운반하는 공법 등을 배우게 하면 수년이 안 되어 경제(經世)에 알맞게 쓸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¹⁶⁾

위의 내용을 보면, 박제가는 기초 자연과학 및 공학 등에 관심이 지대하고 지식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흠찬관에 와있는 서양학자들을 초빙해 그들이 지닌 기하학, 천문, 농상, 의약, 재해 예방, 수리시설, 벽돌 굽는 법, 광업, 군수, 수레, 선박 건조 등에 관한 지식 등을 우리 젊은 인재들에게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과학을 발달시키려 신중히 문장을 만들어 상소하였다. 이러한 상소 내용들의 필요성과 적용의 적합성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 적용하더라도 그 시의의 적절성과 중요성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다. 오늘날에도 국가발전을 위해 강조되는 기초 자연과학 내용들이며 공학관련 내용들이다. 나아가 박제가는 이들 서양학자들을 초빙하고 우리 젊은 인재들을 가르치게 하는데까지의 실천 가능한 비용의 규모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야말로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다. 기존에 투입하고 있는 관상감의 비용을 이 방향으로 돌려 사용하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제안은 이 이상 실용성을 더하기가 힘들 것이다.

박제가는 우리나라가 선박과 차량, 궁실 건축, 기구, 가축 사육 등에 관한 기술혁신을 꾀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큰 이익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하였다.¹⁷⁾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내의 차량과 선박을 비롯한 교통 운수에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수공업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나아가 국방과 병사(兵事)에 이르는 일들

도 새로운 혁신 기술에 의거해야 튼튼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⁸⁾

당대의 사회 분위기는 농업중심의 자급자족경제에 의존하였고, 국가정책과 사회의 지적 분위기도 사·농·공·상 四民의 위계질서를 정립하여 중농억말정책(重農抑末政策)을 답습하면서 수공업과 상업을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직업이라고 천시하였다. 박제가는 나라와 백성의 빈곤과 낙후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일으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박제가의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사회신분과 계층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종래의 四民중에 '工匠'과 '商人'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크게 개선하여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그는 국내의 기술혁신을 위해 긴급한 대책의 하나로 중국으로부터의 선진기술 도입을 역설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첫째, 해마다 10명씩 재주 있는 기술자를 선발하여 사신을 중국에 파견할 때 통역관 중에 끼어 넣어서 중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기구도 사오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산업스파이 방법을 이미 이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나라 안에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관청을 세워서 배워온 선진기술을 실험하고 나라 안에 반포한다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용절감을 위해 관상감에 드는 비용으로 대체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 그런 후에 배워온 선진기술의 규모와 효과 및 그 허실을 관찰하여 정확한 논공행상의 상벌을 내려 내부 경쟁을 유도한다. 과학과 기술은 경쟁 없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시장경쟁원리를 적용코자 했던 것이다. 넷째, 한 사람을 세 번 중국에 보내되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은 교체해서 다시 선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살펴보아 효과와 득이 없는 인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인사 관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철두철미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시행하면 10년 내에 당시 중국(淸)의 선진기술을 모두 배우고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²⁰⁾ 기

초과학 및 공학발전을 위한 실학 복학과 박제가의 관심은 세세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의 주장과 같이 선진과학기술이 들어오고, 국내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 수공업이 크게 발전되면, 객관적으로 종래까지 홀대받고 천시되어 오던 중인 기술자들과 공장(工匠)층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고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박제가는 최종적으로 이들의 지위 향상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원대한 꿈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박제가의 생각은 그가 주도한 과거제도의 개혁안에서 일인일기(一人一技)의 기예를 가진 사람도 과거시험을 통해 뽑자고 주장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상업지리 관련 내용

1) 유희인력의 실용화 방안

조선시대에 유학을 공부한 우리 조상들은 그 영향을 받아 직업에 따른 사회적 신분계층의 질서를 사(士), 농(農), 공(工), 상(商)으로 하였다. 이러한 직업 또는 종사 업무를 기준으로 한 병폐는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의 깊은 폐단을 남기고 있다. 과거 선비나 사대부들 가운데 멸문지화를 당해 숨어살 경우 생명유지의 수단인 땅을 일구며 사는 것이었고, 그것은 큰 허물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공업 내지 상거래 하는 장사는 천시하여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박제가는 실사구시와 실용에 위배된 시대적인 이런 사조를 크게 비판하며 혁신적으로 바꾸려 하였다.

한편, 박제가는 과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대대적 “汰儒”(무능한 양반유생들을 도태시킴)를 단행하려 하였다. 즉, 과거시험에 실패한 수많은 놀고먹던 양반 유생 층을 상업에 종사시킴으로써 상업도 발전시키고 놀고먹는 양반층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를 억말정책(抑末政策)으로 보았다. 즉, 상업을 천시하고 억눌렀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하였다. 상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전국 방방곡곡에 재화를 활발하게 유통시켜 이로 인한 자극을 유도하고, 아울러 농업과 공업기술이 크게 진흥되어 나라와 백성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夫商虛四民之一以其一面通於三 則十之三不可.’²¹⁾

무릇 상인도 사민(四民) 중의 하나인데 그 하나로써 셋에 통하였으니 10분의 3을 점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 같이 상업의 비중을 과격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商賣가 유통하지 못하고 놀고먹는 자가 나날이 많아지면 이것은 인사를 잃는 것이다.’고 강조하여 지적하고, ‘재화가 없이지건마는 유통할 방법을 강구치 않으면서 세상이 그릇되고 백성이 빈곤한 탓으로만 돌릴 뿐이면 이것은 나라가 스스로 속는 것이다’²²⁾고 당시의 위정자의 무능무책을 비판하였다. 당시의 선배 실학자들이나 동년배의 실학자들과는 달리 상업이 다른 산업과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박제가는 그의 사고체계 가운데 ‘重商主義’에 상당한 비중을 둔 듯하다. 상인들의 비중을 총 인구의 30%에 달할 때 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今夫人, 食稻而衣錦, 則其餘皆爲無用之物矣, 然而不有無用之物, 以濟其有用, 則所謂有用者, 舉將偏滯而不流, 單行而易귀也, ...²³⁾

(이제 무릇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 무용지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용의 것을 사용하여 유용의 것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소위 유용의 것도 장차 모두 편체하여 유통되지 않아서 오직 한 구석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모자라게 되기 쉽다.)

박제가는 총인구의 3/10 정도로 상인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상인에 충원해야 할 사람들로 놀고먹는 양반신분 층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곧

놀고먹는 양반층의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상업의 발전을 통해 공업과 기술 및 농업의 발전도 도모하고자 한 생각이었다.²⁴⁾

그는 양반층을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으로써 첫째, 사족(士族)들을 상인들의 대장(臺帳)에 입적시키고, 둘째, 자본금을 대여해 주며, 셋째, 점포를 지어주어 여기에 살게 하고, 넷째, 상업을 잘한 사람은 높은 벼슬을 주어 권장하는 동시에, 다섯째, 날로 더욱 상업이운을 열심히 추구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臣請凡水陸交通販賣之事 悉許士族入籍 或資裝以假之設 應以居之 顯寵以勸之 使之日趨於利 以漸殺其遊食之勢 開其樂業之心 而消其豪強之權 此又轉移之一助也”²⁵⁾

(무릇 수륙에 교통하여 판매하고 무역하는 일은 士族에게 허가하여 臺帳에 입적시키기를 신은 청합니다. 혹 자본금을 빌려주고 應을 설치해 주어서 이에 거주케 하며, 뚜렷한 성과를 낸 자는 벼슬에 발탁하여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상업이운을 추구하게 해서 그 遊食하는 형세를 점차 없애고, 그 직업을 즐겨하는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호강한 권세를 사라지게 하면 이 또한 관습을 轉移하는 데 一助가 될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 상업을 천하게 여겨 양반사족들이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려 할 것을 염려해 중국의 사례를 들기까지 하였다. 중국에서는 사대부들이 시정(市井)에 다니는 것을 전혀 부끄러이 여기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당연시함을 들어 우리나라의 양반사족들이 놀고먹으면서 비루하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것보다 상업에 종사하며 돈을 버는 것이 떳떳하게 일해 자신과 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놀고먹는 양반신분층을 상업이나 무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상인층으로 적극 육성하려했던 생각은 실학사상 가운데에서도 독특하고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²⁶⁾ 실학자들 중에서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은 놀고먹는 양반신분층을 농업에

종사시킬 것을 구상했었다. 농업은 당시에 양반 관료출신들이 은퇴하면 자주 택하기도 하는 직업이었으므로 양반계층들에 대한 이러한 권농은 그다지 파격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사·농·공·상의 四民 가운데 “말업(末業)”이라 천시했던 상업 쪽으로 놀고먹는 양반신분층을 종사토록 하여 이를 국가 정책으로 적극 육성하려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음에 분명하다.²⁷⁾

박제가는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한 주요 원인이 수공업과 상업을 천시하고, 특히 상업을 말업(末業)이라 하여 억말정책(抑末政策)으로 상업의 발전을 억압하는데 있다고 관찰하였다. 박제가는 도리어 상업이 크게 진흥되어 첫째, 한 지방의 무용한 재화와 다른 지방의 유용한 재화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유통되어야 전국의 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이용후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둘째, 소비 곧 수요가 일어나서 생산을 자극하여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셋째, 상업이운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운수 수단과 수공업에도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나라와 백성이 부유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제가는 우리나라의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상인의 수가 총 인구의 30% 정도는 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하면서, “태유(汰儒)당한 종래의 양반신분층을 상인층화 하여 이를 충당하도록 구상한 것이다.

나아가 박제가는 국가가 종래 놀고먹던 양반유생들을 국내 상업과 대외 무역에 종사하도록 상인으로 등록시키고, 자본금을 대여해 주며, 점포를 지어주고, 상업에 종사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 모범이 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등의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권장하여 상업이운을 열심히 추구하게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상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양반신분층이 거대한 규모로 상인층화 함으로써 종래의 신량역천층(身良役賤層)으로 간주되던 상인층의 사회화가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²⁸⁾

박제가의 증상론은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개항을

하여 해외통상, 대외무역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 서해안의 몇몇 항구를 개항하여 중국과 해외통상을 시작하고, 국력과 백성의 생업이 나아지면 일본, 베트남, 유구, 대만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나라들과도 해외통상을 확대하여 문물교류를 증대시켜 나라와 백성의 발전에 도움을 얻도록 할 것을 제의하였다. 당시 쇄국정책이 4백 년이나 계속된 속에서 박제가가 자주적 개항과 해외통상을 주장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상인층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2) 수레를 이용한 육로소통에 대해

사람들의 생활에서 거리마찰 극복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도보였고, 노동력 투입의 가장 원시적 방법 또한 사람이 직접 손발의 힘을 들여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소와 말의 사육과 관리에 청조와 조선조에서 중요시 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생활의 원시적 소통방법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적 노동력 투입 대신에 축력의 효율성을 익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박제가는 청조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각종 수레를 개발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그 편리함을 역설하여 알리면서 우리나라에 들여와 더욱 진보적으로 혁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수레는 천체(天體)를 본떠서 만들어져 땅에서 통행하도록 한 수단으로서 만물을 실어날라 이익됨이 한이 없도록 한 것인데 우리나라만 이것을 운행하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

중국 서울인 연경에는 대낮에도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쿵쿵거린다. 이 소리는 항상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다.²⁹⁾

박제가는 청나라 각 도읍이나 마을에서 수도 없이 왕래하며 사람들과 물자를 싣고 사람이나 말에 의해 끌려 다니는 수레의 편리함을 주의 깊게 살폈다. 바퀴의 크고 작음과 무거움과 가벼움, 용도에 따른 종류의 다양함 등을 각각의 원리에 비추어 꼼꼼히 살폈다. 둥근 수레바퀴는 천체의 모양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천체의 움직임처럼 둥글게 회전하며 힘의 역학 원리를 이용하여 쉽게 사람이나 물자를 나를 수 있다는 편리함에 크게 감탄하였다.

우리나라는 동서로는 천리이고 남북으로는 동서의 3배나 된다. 서울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드는 물자의 도달거리는 동서로는 5백리에, 남북으로는 천리에 불과하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바다에 가까운 곳은 각기 배로 통행한다면 유리하다. 육지에서만 통상하는 자는 서울까지 먼 곳이면 5, 6일 걸릴 것이고, 가까운 곳은 2, 3일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간다고 해도 날자가 끊이 걸릴 정도일 것이다.³⁰⁾

동서 폭과 남북 거리를 대략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계량적 수치계산에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진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수레의 보편적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잇점을 논하기에 앞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조락에 따른 접근성을 논한 위의 내용은 박제가의 지리적 공간 인지 능력과 감각을 드러낸 매우 훌륭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전주(全州) 장사꾼이 처자와 함께 생강과 빗을 팔려고 도보로 의주(義州)까지 간다면 그 이익은 곱절이나 되지만 체력은 길바닥에 소모되어 내외간의 즐거움도 지닐 사이가 없어진다. 원산에서 미역과 마른 생선을 말에 싣고 한양에 왔다가 3일 만에 모두 팔고 돌아가게 되면 이익이 좀 남게 되나, 5일이 걸린다면 이익도 손해도 없게 되고, 열흘이 걸린다면 도리어 본전이 축나 손해를 보게 된다. 돌아갈 때에 싣고 가는 물건에서 얻는 이익이 별 보탬이 안 되고 그동안 말에 든 비용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동(嶺東)에서는 꼴이 생산되지만 소금은 없고, 관서(關西)에서는 철이 생산되어도 밀감이나 유자는 없다. 한경도에는 삼(麻)은 잘되지만 면포는 귀하다. 두메에서는 팔을 천시하고, 해변에서는 생선젓과 메기종류를 싫어한다. 영남의 고찰에서는 과거 볼 때에 쓰일 명지(名紙)를 생산하고, 청산(靑山)과 보은(報恩)에는 대추나무 숲이 많다. 강화는 한강 입구에 위치하여 감이 많다. 백성들이 이런

것을 서로 이용해서 살림을 풍족하게 하고 싶어도 이것을 운반하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³¹⁾

박제가는 위의 설명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바탕을 둔 상거래 형성의 가능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다. 거리극복에 따른 마찰이 문제가 되는 셈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레의 이용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역시 이상의 설명에서 감탄할 만한 것은 박제가의 지리적 감각과 지역 지리적 지식이 매우 탁월하다는 점이다. 당시의 주요 도시와 지방의 지역명을 들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물산을 정확히 연결시켜 예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도시 또는 지방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지역물산은 수레를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소통이 형성될 경우 국가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백성들의 살림이 풍족하게 된다는 설명은 매우 훌륭한 경제지리적 설명이며 탁견이다. 주요 도시를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니라, 한양으로부터 적정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당시로는 매우 요긴하고 훌륭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며 이들 지역으로부터 한양까지 지역 특산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체계를 갖는 것이 국가경제와 주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지리적 관점에서 꿰뚫어 설명한 것이다. 그의 풍부한 지역지리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거래 형성의 경제개념 내지 원리를 모른다면, 이와 같은 유통의 상업 지리적 설명은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말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한 마리의 말과 한 채의 수레가 운반하는 짐이 비록 비슷하다 하더라도 수레가 매우 유리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즉, 짐을 끌어당기는 데에 소요되는 힘과, 등에 싣고 가는 데에 소요되는 고달픔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레를 쓰면 말이 병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5, 6필의 말이 운반하는 것을 수레 하나로 모두 운반할 수 있으니 몇 갑절이나 이익이 있는 셈인가?(중략). 한편, 수레를 이용한다면, 사신 행차에 사용되는 말의 수요는 더 보태지 않고서도 사신 일행 중에 한 사람도 걸어서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래로는 말을 병들게 아니할 것이며, 위로는 동행하는 사람의 체력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³²⁾

위의 내용에는 거리마찰의 극복에 대한 수월성을 갖춘 수단이 무엇이 유리한 것인가를 따지는 기본 논리가 잠재되어 있다. 알아듣기 쉽게 예를 잘 들고 있다. 요점은 도보 보다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편하고 빠르며, 말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말이 끄는 수레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안전하며, 힘을 안들이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이다.

한편 박제가는 수레를 우리강도에서 활용코자 할 때 산이 많아 불편한 점, 군데 군데 빠지기 쉬운 도랑의 문제, 두메산골과 같은 외진 곳에서의 수레 이용 등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의 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³³⁾ 당시의 이러한 제안과 주장의 현실화로 얻어질 수 있는 이로움은 가히 “동근 바퀴의 기적”을 논할 정도의 혁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교통수단의 발달을 거쳐 끊임없는 과학적 공리를 통해 오늘날의 편리한 전철과 KTX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해운 통상을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

박제가는 육로 교통으로서의 수레를 이용하면 국가경제에 크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역시 비교우위의 원리 하에 이웃 국가들과의 통상을 서두를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제일의 교역대상국은 가까운 중국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우리와 이웃해 있는 섬나라 일본과 유구(琉球), 오늘날의 베트남,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중국의 여러 지역, 민중(閩中), 절강(絕江), 교주(交州), 광주(廣州) 등에서 교역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우리도 서두를 것을 촉구하였다.³⁴⁾

중국과의 통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조선과 청사이의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유민들로 구성된 황당선(荒唐船)의 뱃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 저자(市)를 개설해

주고 후하게 대접하여 사권 후 여러 물건의 향도로 삼으면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상에 임할 수 있는 좋은 방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바닷가 여러 섬의 물길에 익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관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황해를 사이에 둔 대(對)중국의 여러 지역과 우리나라 서해안의 여러 지역 사이를 배로서 통상을 성사시키는 중요한 역할자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³⁵⁾ 이것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영남지방에서 생산되는 목면과 호남의 모시, 서북지방의 무명 실(絲)과 삼베를 중국의 비단·담요와 교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³⁶⁾ 조선 후기 실학자의 시각으로 이미 환 황해권 대(對)중국 교역 가능성과 교역장소 및 상품 품목까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박제가의 저서 북학의를 통해 그가 지닌 지리적 관심과 지리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피는데 있다. 나아가 당대 사회에 대해서 박제가의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그의 지리적 관심과 지리 지식, 특히 경제지리와 관련한 관심과 지식이 어느 방면에 어떤 깊이까지 안내되어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피려 하였다.

북학의에 나타난 경제지리 관련 내용은 결국, 농업지리, 공업지리, 상업지리 관련 내용으로 대별해서 분류 분석이 가능했다.

농업지리 측면에서는 농지이용과 농산물 관리, 그리고 가축사육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밭의 토지이용, 종자의 파종, 시비(施肥), 농잠과 과일의 관리, 소와 말의 사육과 관리에 관한 섬세하고 치밀한 내용은 실학자인 박제가의 실용적 지리 지식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농사에 축력으로서 절대적 도구가축이었던 소를 아끼는 마음과 관

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축력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당시 교통수단으로서 중시되었던 말(馬)에 관심이 지대해 이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밭이나 눈에 거름을 시비하는 일의 중요성과 거름관리 방법을 세세하고 실질적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해박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 옷과 더불어 옷감의 근간이 되었던 농잠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농민들을 깨우치려 하였으며, 나아가 과실의 겨울철 보관법과 관리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관련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려 하였다.

공업지리 관련 내용에서는 연경(북경)에 들어와 있는 서양학자들로부터 첨단과학 및 공학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수공업 및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근대화된 공업 발달을 강조하였다. 구체적 대안으로 첫째, 해마다 10명씩 재주 있는 기술자를 선발하여 사신을 중국에 파견할 때 통역관 중에 끼어 넣어서 중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기구도 사오게 하며, 둘째, 나라 안에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관청을 세워서 배워온 선진기술을 실험하고 나라 안에 반포하며, 셋째, 그런 연후에 그 사람이 배워온 선진기술의 규모와 효과의 허실을 관찰하여 상벌을 내리고, 넷째, 한 사람을 세 번 중국에 보내되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은 교체해서 다시 선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10년 내에 중국의 선진기술을 모두 배우고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업지리 내용에서는 사대부 양반들의 유희 노동력을 상업 방면에 쓰일 실용적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방안에 대해 철저히 고민하고 있다. 나아가 수레를 이용한 전국 방방 곳곳의 육로교통을 열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웃 청나라와 일본, 유구, 베트남 등의 나라들과 통상을 통한 국가경제를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지리와 관련한 식견과 그의 생각은 대단히 날카롭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박제가는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한 주요 원인이 수공업과 상업을 천시하고, 특히 상업을 말업(末業)이라 하여 억말정책(抑末政策)으로 상업의 발전을 억압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업이 크게 진흥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그 이유를 첫째, 한 지방의 무용한 재화와 다른 지방의 유용한 재화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유통되어야 전국의 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이용후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둘째, 소비를 통한 국내 수요가 일어나서 생산을 자극하여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셋째, 상업이윤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운수 수단과 수공업에도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나라와 백성이 부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수레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지방 특산물의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음을 해박한 지역지리 지식과 경제 지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하였다.

요컨대, 박제가는 그의 저서 [북학의]를 통해 농업 지리, 공업지리, 상업 지리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당대의 훌륭한 북학과 실학자이다. [북학의]에도 나타난 것처럼 고금을 통해 지리지식과 지리적 식견은 실학을 중시하는 선학들이 지닌 실용성 및 구체성에 바탕을 둔 지식으로 활용되는 종합지식임을 알 수 있다. 박제가의 현실적인 당대의 경제 지리적 지식과 사고체계가 수용되고 꽃을 피웠다면 조선시대 후기의 국력신장은 크게 도약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주

- 1)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약용의 「목민심서」,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을 분석한 바 있다.
- 2)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www.aks.ac.kr, 민족문화대백과) 참조.
- 3) “鄒隨其俗之可以行於本國, 便於日用者, 筆之於書, 並附其

爲之之利與不爲之弊, 以爲說也, 取孟子陳良之語, 命之曰北學議…”

- 4) 사방 천리 길의 넓이라면 오늘날의 계량 수치로 400km²이다. 사방 200리 길의 넓이라면 80km²에 불과한 것이니, 본 문장대로라면 정확히 소출량이 1/5에 불과한 것이다. 박제가의 계산이 정확한 것이라면 당시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집약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北學議] 內篇, 田
- 6) [北學議] 內篇, 桑·糞
- 7) [北學議] 內篇, 桑·菓
- 8) [北學議] 內篇, 畜牧
- 9) 北學議 內篇, 畜牧: “遼左遼右二十里之間, 鳴吠相聞, 畜牧成群, 民之徒步者絕小, 乞焉者亦牽驢而行, 稍富之戶, 禽畜, 合至十餘種, 凡累百頭, 馬騾驢牛各頭十餘匹也, 猪羊各數十匹也, 狗數頭也, 或駱駝一二匹也, 鷄鶩鴨各數十頭也.”
- 10) 北學議 內篇, 畜牧: “有官馬山焉, 官牧馬之場也, 馬幾蔽山, 其他數千爲隊, 皆放之于牛野, 雖雪天任其飲齧, 如欲盡廢而粟焉, 則雖天子之富, 有不能及者矣”.
- 11) 조선시대에 한성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다섯 구역을 말함. (盧道陽李, 李錫浩(譯), 1975, 韓國名著大全集; 擇里志, 北學議, 서울; 大洋書籍, 285쪽 註)
- 12) [北學議] 內篇, 牛
- 13) [北學議] 內篇, 牛
- 14) [北學議] 內篇, 牛
- 15) [北學議] 外篇, 馬
- 16)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 典設暑別提 朴齊家所懷
- 17) [北學議] 外篇, 財富論
- 18) [北學議] 外篇, 兵論
- 19) 金龍德, 〈朴齊家 研究〉, [中央大 論文集] 제5집, 1961. (慎鋪廈, 199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p.391 각주 재인용)
李成茂, 〈朴齊家の 北學議〉, 歷史學會 編, [實學研究入門](一潮閣, 1973) 참조.
- 20) [北學議] 外篇, 財富論
- 21) [北學議] 外篇, 未利
- 22)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 典設暑別提 朴齊家所懷

- 23) [北學議] 內篇, 市井
- 24) 慎鋪廈, 199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p.389.
- 25)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 典設暑別提 朴齊家所懷
- 26) 慎鋪廈, 199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p.390.
- 27) 慎鋪廈, 199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p.391.
- 28) 慎鋪廈, 199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pp. 399-400
- 29) [北學議] 內篇, 車
- 30) [北學議] 內篇, 車
- 31) [北學議] 內篇, 車
- 32) [北學議] 內篇, 車
- 33) 예를 들어, 첫째, 수레는 오르막은 오를 수 있으나 빠지는 곳에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성문 앞과 저자거리의 작은 도랑은 반드시 복개하도록 하고, 나무다리는 가로로 놓도록 한다. 둘째, 수레가 통행하면 길은 저절로 넓어지고 바로 된다. 셋째, 깊은 두메에는 사람이 적고 외부와의 소통이 뜸할 것이므로 마을 내 농사용 수레로써 통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수레란 바퀴가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以上 北學議 內篇 車). 한편, 담헌 홍대용의 말을 인용하여, “수레가 다닐만한 길을 닦으려면 토지 몇 마지기는 없어야겠지만 수레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땅값을 제하고도 넉넉할 것이다.” 라고 수레의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北學議 內篇 車).
- 34) 지금 나라의 큰 병폐는 가난이라 합니다. 가난은 무엇으로써 구제할 것인가 하면 중국과 통상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정에서 한사람의 사신(使臣)을 달려 보내어 중국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교역하는 것은 천하 어디서나 통하는 정당한 방법이다. 일본, 유구(琉球), 안남(安南), 서양 등 여러 나라가 모두 민중(閩中), 절강(絕江), 교주(交州), 광주(廣州) 등 지역에서 교역하니, 우리도 물길로 통상하여 여러 외국들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 저들은 반드시 아침에 청한 것을 저녁에는 허락할 것입니다. (以上 [北學議], 〈丙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 典設暑別提 朴齊家所懷〉)
- 35) 청의 등주(登州), 내주(萊州)의 배는 조선의 장연(長淵)에 연결되고, 청의 금(金), 부(復), 해성(海城), 개평(蓋平)의 물자는 조선의 선천(宣川)과 연결되어 교역하도록 하며, 강주(江州), 절강(浙江), 천주(泉州), 장주(漳州) 지역의

화물은 은진(恩津)과 여산(礪山) 사이에 모이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6) 이밖에도 대살(竹箭), 백추(白礎), 낭미(狼尾), 곤포(昆布), 복어(鰻魚) 등의 생산물은 금과 은, 서각(犀角), 병갑(兵甲), 약재(藥材) 등과 통상 교역물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김인숙, 1994, 박제가의 북학사상 연구; 북학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학위논문
- 이익성, 1992, 실학사상독본, 한길사
- 이현숙, 1990, 북학의를 통해본 박제가의 농업개혁사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김경미, 1991, 박제가 詩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우석, 1999, 조정 박제가의 교육사상,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정일남, 2001, 박제가의 詩論과 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용택, 2004, 목민심서의 경제지리
- 손용택, 2006, 성호사설에 나타난 지리관 일고찰: 천지문을 중심으로
- 손용택, 2005, 열하일기를 통해본 청조의 제도, 문물, 경제 고찰
- 慎鋪廈, 199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서울: (주) 지식산업사
- 盧道陽李, 李錫浩(譯), 1975, 韓國名著大全集; 擇里志. 北學議, 서울: 大洋書籍
- 교신: 손용택, 경기도 분당구 하오고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Tel: 031-709-8111, E-mail: sohn@aks.ac.kr
- Correspondence: Yong-taek, Sohn, 110 Haogogae-gil, Bundang-gu, Seongnam-si, kyeonggi-do, 463-791, Korea, Tel: 031-709-8111, E-mail: sohn@aks.ac.kr

최초투고일 2008년 5월 25일
최종접수일 2008년 6월 20일

The Economic Geography of Bukhakui (北學議)

Sohn Yong-Taek*

Abstract : This paper aim to review the extent of Park Je-Ga's geographical interest and knowledge and where he intended to make good use of them through Bukhakui (北學議). In particular, it was classified and interpreted as the contents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ial and commercial geograph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economic geography.

As for the contents related to agricultural geography, it suggests minutely and precisely the necessity and concrete methodology for farmland, seeding, fertilization, breeding of cattle, sericulture and fruits.

As for the contents related to industrial geography, it lays emphasis on the pursuit of the modernization of ours by means of accepting high-tech, industrial engineering and knowledge from Western scholars who were staying in Beijing.

As for the contents related to commercial geography, it puts emphasis on the conversion of idle labor capacity of the nobility to practical production capacity, the pursuit of economic vitalization by opening land transportation through wheels and the trade by sea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Qing, Japan, Ryukyu, Vietnam and so on.

It can be known through this study that Park Je-Ga was a realist who made an effort to raise the economic power of the region and the country with using his endeavor of economic geographical interest and knowledge. His economic geographical interest and knowledge were connected directly with practical use. If his economic geographical knowledge and way of thinking had been accepted successfully at that time, the economic power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could have leaped to a considerable degree.

Keywords : Park Je-Ga, Bukhakui (北學議), contents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ial/ commercial geography, practical learning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